

3·11 조합장 선거 D-2

불법 99건 적발 막판 혼탁·과열

첫 신고포상금 1490만원 지급
선관위, 금품살포 단속 '비상'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11일)가 이를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선거구에서 막판 치열한 경합을 벌여지면서 혼탁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 선거가 해당 조합원 등 유권자가 수가 한정돼있는 점을 감안하면 당선을 위해 막바지 금품 살포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관위와 경찰 등 관계기관이 총력대처에 나섰다. <관련기사 5면>

8일 광주시와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21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총 99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22건은 고발 조치하고 5건은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72건에 대해서는 경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현금 30만원을 주고 지지를 호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흥 지역 모 조합의 경우처럼 주로 금품을 제공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고, 사촌 동생이 나서 출마 예정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광양의 모 조합처럼 친인척이 연루된 사건도 있었다.

이와 함께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경합이 뜨거워 지역에서는 최종 수단으로 금품 살포 유혹이 커져 불·탈법 행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처럼 조합장 선거가 막바지까지 혼탁,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선거운동이 제약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후보자 본인 이외에는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공공장소를 제외한 병원, 극장, 조합 사무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다. 토론이나 연설회가 불가능하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도 2주 남짓으로 짧은 것도 불법의 유혹에 빠지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을 접촉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의욕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섰다가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심상"이라고 호소했다.

전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불법선거 근절과 공명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면서 적발 건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불만도 있지만 앞으로 치러질 선거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엄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 선관위는 이번 선거와 관련 포상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불법 사례를 신고한 3명에게 첫 신고포상금 149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전·물품·향응 제공 맨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수수자의 경우도 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장성 불태산 불태우는 산불

8일 오전 11시20분께 장성군 진원면 고산저수지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불태산으로 번지면서 산림 3ha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헬기 14대와 소방차 10대를 투입해 오후 7시께 큰 불길은 잡았다. >관련기사 6면 /나명주기자 mina@kwangju.co.kr

광주U대회 '南北 3대 이벤트' 성사되나

<단일팀 구성·판문점 성화봉송·北 응원단 파견>

정부 "北선수단 경비 지원검토"

인천AG 팬 5억5천만원 집행

북한이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광주 U대회)의 공식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알린 가운데 정부도 필요할 경우 북한 선수단에 대한 경비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회 흥행에도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에 따라 초대형 이벤트로 꼽히는 남북단일팀 구성, 판

문점 성화봉송, 북한 응원단 파견 등 굵직한 대형 이벤트의 실현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선수단 지원 문제와 관련, "경비 지원 문제에 있어서는 국제관례와 과거 사례 등을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북한도 북한 선수들의 대회 참가와 관련해서 협조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조지위 측에 전달했고 이외에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측이 북

측에 대해서 협조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지위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3일 이번 대회에 8개 종목 108명의 선수·임원을 파견하는 내용의 공식참가신청서를 국제대학교스포츠연맹(FISU)을 통해 보내왔다. 정부는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에 들어간 경비로 총 5억5000여만원 정도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북한 응원단에 대한 지원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

면서 북한 응원단의 참가 자체가 무산됐다는 점에서 광주 U대회의 지원 규모에 따라 북한 응원단의 참여 가능성이 불투명해 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 U대회 조직위 관계자는 "남북단일팀이 구성될 경우 종합대회 사상 최초의 사례인 만큼 남북간 화해 무드 조성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판문점을 통한 성화봉송과 북한 응원단 참가 등의 빅이벤트도 반드시 성사시켜 광주 U대회를 성공대회로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이번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장을 끝으로 법관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 출발하오니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주요 학력 및 경력 ◇

- 영광출생, 영광해동고교, 전남대 법대
- 제38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제287기)
-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
- 중국 북경대학교 장기해외연수
- 광주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 광주지방법원·가정법원 장흥지원장

변호사 장 정 희 올림

* 소속변호사 : 차기현 변호사
* 전남대로스쿨27기, 한국국제신문 기자 * 광주고법·광주지법 재판연구관

■ 업무개시: 2015. 2. 23.(월) ■ 개업장소: 광주 동구 동명로 107. 금강빌딩 201호
■ 대표전화: 062)223-0500 ■ 팩스: 062)226-0500 ■ 개업소일: 2015. 3. 13.(금) 17:00~

전남 창조경제 혁신센터 5월 개소

여수 GS 칼텍스 교육센터에 '등지'

농수축산·바이오케미칼 육성

오는 5월 문을 열 전남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전남의 첨단 융복합 농수축산업 육성, 바이오케미칼 신소재 개발, 원력 진료·교육 등을 맡게 된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최근 최양희 미래부장관, GS칼텍스 회장과 만나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컨셉을

확정했다.

전남도는 8일 "전남 창조경제 혁신센터는 여수 덕충동에 소재한 GS칼텍스 교육센터(ValueCenter)에 들어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GS칼텍스 교육센터는 부지 1만2998㎡, 건물 2370㎡ 규모로, GS 측은 이를 현대적이고 창조적인 감각으로 재구성하면서 최첨단의 시설을 도입해 구축할

예정이다. 3월 중에 법인 설립, 센터장 공모 및 직원 선발도 마칠 예정이다.

또 센터로 진입하는 도로를 추가로 확보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센터 내에 다양한 문화공간도 확보하는 등 센터가 지역의 경제·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자리잡도록 한다는 것이 전남도의 복안이다.

혁신센터가 개소되면 첨단 농수축산과 바이오 케미칼 산업과 관련한 창업·기술 개발이 활성화되고, 관련 중소기업의 역량이 강화되면서 일자리도 창출되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장바구니 물가 경총
장보기 무섭다 ▶14면
돌아온 타이거즈맨
윤석민 인터뷰 ▶20면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나르시스에서 피어나는 무한한 생명력
헤라 시그니아 크림

고귀하고 감미로운 아름다움의 상징 나르시스-그 절정의 생명력을 피부에 선사하는 안티에이징의 정수, 헤라 시그니아 크림
3백만 나르시스 스템셀이 피부에서 피어나는 순간
겨울 속 생명력 넘치는 아름다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유명역사품이나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고객상담실: 080-023-5454(수신료외교부담) www.hera.co.kr